
여성비하 · 역사왜곡 등 진짜 망언의 달인 김문수

- 국민의힘, “실언 결격” 소송해놓고, 국민 앞에 “대선후보” 내세워 -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촌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도로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코미디극도 이를 따라 잡지는 못 할 수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지켜야 하는 의무 보다는 잣밥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 힘은 몇 달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아 “망언집”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국민 들께선 “망언집이 아니고 명언집 아니냐”는 반응으로 머쓱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책자는 참으로 읽기도 민망한 망언과 망언이 이어지는 ‘진짜 망언집’입니다.

일부 발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성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뭘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인 저렴한 성적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만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가며, 스스로 대권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여성비하, 약자조롱, 역사왜곡, 노골적인 차별발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스스로 김문수 후보의 “실언”을 이유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스스로 “이 사람은 대선후보가 안된다”며,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 놓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민들 앞에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진짜 망언집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김문수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